

국토균형발전 · 송전탑 최소화 투쟁

송전탑백지화 무주군 범군민대책위,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 장거리송전망 계획 재검토 촉구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 송전탑 반대 전국 대행진 참가 무주군민들과 송전탑백지화 무주군 범군민대책위원들이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장거리 송전망 계획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5일 오후 5시 30분, 무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정부는 AI, 반도체,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른 막대한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있다며 전기는 지방에서 생산하고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그 부담과 피해를 농산촌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주군은 신장수~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가 전 지역을 관통할 예정이며, 신임실~신계룡 초고압 송

전선로의 대상지역에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신장수~신목천 송전선로 교체 및 용량 증대사업까지 예정되어 있다. 하나의 송전선도 감당하기 어려운 터에 여러 초고압 송전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거대한 송전탑 벨트가 무주 전역을 뒤덮으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송전선로는 단순한 전깃줄이 아니다”며 “산과 숲을 훼손하고 농지와 생태계를 단절시키며 주민의 삶과 공동체를 혼란시킵니다. 재산권 침해와 생활환경 악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기에 국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범군민대책위는 정부를 향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장거리 초고압 송전망 건설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국가전력망 정책 전반에 대해 주민, 전문가,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즉각 구성 운영, 수도권 집중형 산업정책과 장거리 송전 중심의 국가전력망 정책 중단 및 산업의 지방 분산과 지산지소 에너지체계로 전환, 송전망 계획 원점 재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신장수~무주영동, 신임실~신계룡 등 모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단 등도 요구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초고압 송전망 계획 전면 재검토로 국토균형발전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향후 국토균형발전과 송전탑 최소화를 바라는 전국의 시민들과 굳게 연대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 고 천명했다. /무주=손홍기 기자



진안군은 5일 군청 강당에서 '2026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진안홍삼축제 실무추진단 출범

축제 성공 개최 위해 준비 박차

진안군은 5일 군청 강당에서 '2026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1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경영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실무추진단은 각 실·과·소 팀장과 부·팀장 등 총 52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준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완성도 높은 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경영 단장은 “진안홍삼축제는 우

리 군을 대표하는 행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홍보대사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삼의 매력에 빠져들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2026 진안홍삼축제는 9월 17일 진안고원시장 천변에서 열리는 정아재 낙화놀이로 시작으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풍성한 먹거리 등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하수관로 정비 ·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박차

무주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무주군은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비롯해 치목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마산과목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지역 생활 기반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방류수역 수질 보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불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기존 설천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할 수 있도록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무주군은 총사업비 137억64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까지 하수관로 11.8km를 신설·정비하고, 178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사업에 착수한 무주군은 지난달 30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소통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무주군은 적상면 과목리

상조마을을 대상으로 치목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마산과목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추진한다.

5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과 공사 일정, 주민 협조사항 등을 공유했다.

치목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무주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70여억 원을 투입해 적상면 과목리 상조마을의 하수 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마산과목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8억여 원을 들여 상수관로와 60톤 규모의 배수지, 가압장 1곳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무주=손홍기 기자

장수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본격 운영

장수군은 지방세입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일 실태조사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체납관리단의 운영 방향과 주요 역할을 공유하고, 현장 실태조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직무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경



하고 투명한 체납 관리와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다짐했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입 체납액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을 통한 납부 안내를 실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양대체전 성공 위해 안전한 먹거리 조성 협력

진안군은 다가오는 양대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5일 도청 및 유관기관, 민간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식음료안전관리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기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관리과), 전북특별자치도(감염병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와 △(관할 시·군) 전주시, 익산시, 장수군, 부안군의 담당 부서가 참석했다. 아울러 △(민간단체) 한국외식업중앙회(진안지부)



등 민·관 전문가들이 대거 동참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성공적인 체전 운영을 위한 주요 안전으로는 식품접객·숙박·민박업 사전 안전 관리 강화, 단계별 비상 대응 체계 가동,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 지원 등이 다뤄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량강화 · 의무교육 실시

장수군은 4일부터 6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45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및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한국의 생활환경과 근로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과 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베트남과 라오스 국적 통역사를 배치해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근로자들이 교육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 법질서 △산업안전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등으로 안전의식 향상과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 중심으로 운영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소방서, 계곡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현장 방문

장수소방서(서장 정지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3일 관내 주요 계곡 등 물놀이 위험장소 7개소를 대상으로 관서장 현장 지도 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지현 서장은 장수군의 대표적 휴양지인 방화동 계곡을 비롯해 지지계곡, 도유동 계곡 등 물놀이 위험지역 및 관리구역 7개소를 순차적으로 둘러봤다.

장수군 계곡은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고 물살이 빨라지는 산악계곡의 특성을 띄어 여름철 수난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현장 안전시설물 보완 및 대피 체계 구축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인명구조함 내 구명환·구명로프 등 수난구조 장비 관리 상태 △물놀이 위험구역 경고 표지판 및 출입 통제선 설치 상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 통로 및 안내 시설 확인 △119시민수상구조대 근무 여건 점검 및 대원 격려 등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광장페스타 시즌1: 썸머' 개최

장수군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장수만남의광장 일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광장페스타 시즌1: 썸머'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와 농특산물 판매,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으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먹거리도 함께 선보인다.

행사장에서는 화덕피자와 소시지번,

스팸마요잡밥, 타코, 크레페, 치킨, 태국식 닭밥, 무뼈닭발, 아롱사대 수육, 육전 등 다양한 세계 음식과 전통 음식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또한 블루베리와 수박, 토마토, 옥수수, 오이, 꿀, 김부자와 등 장수군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키펍과 찰리가방, 티셔츠, 액세서리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



특히 '장수물'에서는 행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먹거리·농특산물·체험 구매권을 20% 할인 판매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